

광양알루미늄 공장 세풍산단에 첫 삽

외국인투자 1호 기업 9일 기공식...지역 주민 환영
기반 시설 마련 등 세풍산단·광양항 활성화 기대 ↑

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 1호 기업인 광양알루미늄(주) 공장이 9일 첫 삽을 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4일 “광양알루미늄(주) 기공식을 오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 절차로 1년 간 늦어졌던 광양알루미늄(주)의 투자는 주민 다수의 동

의를 받아 지난 달 5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재개됐다.
이후 착공 절차를 마무리한 광양알루미늄(주)은 지자체, 지역주민을 초청해 오는 9일 세풍산단에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세풍산단에 입주하는 1호 기업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예정이다.

광양알루미늄은 세풍산단 외투자역 8만2천627㎡ 부지에 1천억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계획이다. 1단계 160명, 2단계 사업 준공 시 400명을 고용하게 되며 연 1만3천TEU 화물 창출로 광양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특히 광양알루미늄은 환경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주)의 투자 실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변전소 건립과 도시가스 공급 등 세풍산단에 기

반 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투자유치로 알루미늄 연관기업 유치와 광양알루미늄(주)의 한국의 글로벌 FTA 플랫폼을 활용한 유사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난항을 겪었던 광양알루미늄(주)의 투자유치가 실현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광양알루미늄(주) 투자유치가 시금석이 돼 다른 여러 연관기업들이 유치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집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도, 12월 ‘별빛이 빛나는 밤’ 추천관광지 선정

광양시는 4일 “광양 나랭이골 자연리조트가 전남도의 12월 ‘이달의 추천 관광지, 별빛이 빛나는 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야경과 인생샷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인생샷 명소로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정맞춤 관광지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리산과 백운산 끝자락, 하늘과 맞닿은 해발 450m 고지에 위치한 나랭이골 자연리조트는 낮에는 수천 그루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내뿜고 밤에는 1천430만개의 LED등이 별처럼 반짝이며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리온, 카시오페아 등 거

울밤을 수놓는 별과 사슴, 곰, 황금마차 등 나랭이골에 펼쳐진 빛의 향연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구름 위 신비의 공간, 글램핑장에서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로맨틱한 겨울밤을 보낼 수 있다. 동절기(11~3월)에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점등한다.
정영미 광양시 관광마케팅팀장은 “수려한 산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광양 나랭이골 자연리조트는 휴양과 낭만이 넘치는 광양 대표 웰니스 관광명소”라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광양시, 토양 검정 안내물 보급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4일 “휴작기에 실시하는 토양검정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토양검정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사업은 작물 정식전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규산, 양이온, 전기전도도(EC) 등을 측정한 후 토양상태에 따른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병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토양검정사업을 통해 연간 시비처방서를 4천부 가량 발급해 농가의 토양관리를 돕고 있다.
시는 이번 홍보물을 각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에 배부해 그동안 토양검정을 하지 않은 새로운 농가의 유입을 독려하고 기존 토양검정 이용 농가에도 절차를 쉽게 이해시켜줌으로써 화학비료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도에 앞장설 예정이다. /광양=허선식기자



광양 덕산마을회관 준공

광양시는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 정인화 국회의원, 이형선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노산·문양오·박말래·최대원 시의원, 송백섭 산림조합장, 허순구 광양농협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읍 덕산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5월 착공한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주방시설, 대양광 등의 시설을 갖춘 주거형 복지 공간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17.62㎡ 규모로 건립됐다. /광양=허선식기자

“구례 하사마을 엄니들, 드디어 책 내 부렸소”

생애사와 그림 엮은 ‘하사엄니 화전가’ 13일 출간기념회

구례 하사마을 어머니들과 지리산씨협동조합(대표 임현수)이 4년 동안 함께 한 결과가 드디어 책으로 나오게 됐다. 어머니들의 생애사와 직접 그린 그림을 엮은 책 ‘하사엄니 화전가’(니은기획 출판)가 출간돼 오는 13일 출간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책은 하사마을 어머니 열세 분의 생애를 듣고 녹취한 기록을 담았으며 4년 동안 오치근·박나리 작가가 진행한 그림 수업에서 어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곁들여 완성됐다.
책에는 육이오 사변과 산(山)사람들

에 대한 기억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밥해 먹던 배고픈 시절, 먼저 간 남편을 향한 그리움, 시집살이에서 얻은 서러움 그리고 화전놀이 다녀오던 싱그러움 추억까지 인생 회노예락이 모두 담겨 있다.
호미 들던 손으로 붓과 색연필을 잡고 천천히 그려 낸 어머니 작가들의 그림도 볼 수 있다. 옛 친정집부터 큰애기 때 놀던 모습, 눈에 물 대는 풍경, 죽기 전에 해 보고 싶은 것들까지 어머니들 그림에는 글만큼이나 무수한 사연이 그려져 있다.
‘하사엄니 화전가’ 출간기념회는 201

6년부터 하사마을 어머니 그림 수업을 운영해 온 지리산씨협동조합(이하 지리산씨)에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지리산씨는 지역에서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했던 소규모 문화기획 단체에서 이제는 2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회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아 올해 LH의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공간을 열게 됐다.
지리산씨가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4년 전 처음 펜을 잡기 시작해 올해 책 작가가 되신 하사마을 어머니의 책 출간기념회를 개소식과 함께 하고자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사엄니 화전가’는 (재)전남도문화



관광재단이 주관,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2019 전남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운영한 ‘구례 하사마을’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 그림책이 되다’의 결과물이며 일부 사업비로 제작돼 올해는 비매품으로 소량만 출간된다.
출간기념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Local Life & Design Studio 지리산C(구례읍 봉성로 36 유림회관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축협, 자활센터에 지역사랑 기금 전달

구례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전창동)은 4일 “최근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에 지역사랑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확대·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창동 조합장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줄인다

구례군은 4일 “노후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대상 사업으로는 경유자동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이 있다.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구례군으로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대상 건설기계는 공고일 기준 구례

군으로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 중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노후엔진(Tier-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이번 사업량은 노후 경유자동차 3대, 노후 건설기계 3대로 적정장치 장착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 직접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부착 계약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구례=이성구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그린알로에

알로에

장생로 무당향로